

# 국어교육을 위한 텍스트언어학\*

김 봉 순 (공주교대)

## <차례>

- I. 머리말
- II. 텍스트언어학의 성격
  - 1. 텍스트언어학의 형성 배경
  - 2. 텍스트언어학의 관심 영역
  - 3. 텍스트언어학의 연구 범주
- III. 국어교육과 텍스트언어학의 영향 관계
  - 1. 텍스트언어학에서 국어교육으로
  - 2. 국어교육에서 텍스트언어학으로
- IV. 국어교육을 위한 텍스트언어학의 재조명
- V. 맺음말

## I. 머리말

국어교육에서 텍스트언어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어교육과 텍스트언어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기존 논의는 텍스트언어학이 국어교육에서 유용하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텍스트언어학에서 생산한 이론을 국어교육이 수용하고 적용한다는 학문적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텍스트에 대한 이론은 텍스트언어학이 주도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된 이론의 적용과 검증은 국어교육이 맡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공주교육대학교의 2000년도 연구지원비를 받아 이루어졌음.

국어교육 분야에서 생산된 이론조차도 텍스트언어학적 성과로 편입시키면서 국어교육의 몫은 그것의 적용과 검증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텍스트언어학과 국어교육은 이론을 생산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생산과 소비의 구도로 설정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도는 타당할 수 있다. 기존의 텍스트언어학의 연구 성과들을 국어교육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텍스트언어학에서 생산된 이론 또는 지식들은 더욱 설득력 있는 국어 지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현과 이해의 언어사용 전략으로도 활용되는 매우 생산성 있는 이론으로서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국어교육의 전 과정에서 활용되었다. 국어교육은 텍스트언어학이라는 영양분의 섭취로 더욱 튼튼해진 것이 사실이고, 텍스트언어학은 국어교육에서 성공적으로 소비되었다. 텍스트언어학은 이론의 공급을 국어교육은 그것을 수용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어교육에서 텍스트에 관심을 갖는 이유와 텍스트언어학에서 텍스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다르다. 텍스트언어학은 언어를 더욱 실제적이고 타당하게 설명하기 위해 텍스트를 연구하지만 국어교육은 훌륭한 언어사용자를 길러내기 위해 텍스트를 연구한다. 필요가 다르면 같은 대상에 대한 연구일지라도 긴요한 연구 문제가 다르고, 설명 방식이 다르며, 논의의 범위가 다르고, 체계화의 방법이 달라진다. 국어교육에서는 텍스트언어학에서 국어교육으로 흐르는 일방적인 영향관계를 설정할 수 없고, 나아가 기존의 텍스트언어학과는 다른 국어교육적 텍스트언어학이 필요하다.

국어교육에 필요한 텍스트 이론을 텍스트언어학이 우리의 수요에 따라 공급해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어교육에 필요한 텍스트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것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나온 연구 성과들도 국어교육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교육적 의의가 검토되고 교육적 형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텍스트를 보는 관점도 언어학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인지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확대하여 텍스트의 다양한 측면을 가능한 한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한다. 즉 텍스트 연

구의 범위가 텍스트의 현상 기술이나 설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요소를 선별하고 교육적 형태로 재구성하고 그 기능성을 검증하는데까지 설정되어야 한다. 요컨대 국어교육에 필요한 텍스트적 문제를 연구하는 ‘국어교육을 위한 텍스트언어학’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이 텍스트언어학이 국어교육에서 더욱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이며 국어교육 또한 텍스트언어학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국어교육을 위한 텍스트언어학적 인식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하려 한다.

## II. 텍스트언어학의 성격

### 1. 텍스트언어학의 형성 배경

텍스트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언어학에서는 문장과 텍스트가 가지는 문법적 구조와 이 구조가 사용되는 조건과 자질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며, 심리학과 교육 분야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텍스트가 이해되며 기억되는가를 연구한다. 그리고 사회학에서는 일상생활에 나타난 텍스트 및 여러 상황과 제도에 나타난 텍스트 내지 커뮤니케이션의 형식을 분석하고, 법학이나 신학은 텍스트를 해석하며, 인류학은 시대와 사회에 따른 텍스트 특성의 차이를 연구하는 등 각 분야에서 각각의 필요에 따라 텍스트를 연구한다.

그러나 오늘날 텍스트언어학 성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분야는 언어학과 철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도움을 준 분야로 사회학과 심리학, 인류학 등을 꼽을 수 있다. 1960년대 언어학계 내에서는 구조주의 언어학과 변형생성문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러한 언어 연구에 대한 한계와 반발로 언어의 새로운 국면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구조주의 언어학자 Harris는 그의 저서 <Structural linguistics>의 서문에서 ‘이전의 언어학은 문장의 한계를 넘지 못했는데 그 방법으로는 문장간

이나 문장 부분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기술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문장 언어학의 한계를 말하고 문장보다 더 큰 단위로서 텍스트 연구의 필요성을 말한다(김종인, 1989). 그리고 언어를 추상적인 장치 또는 심리적인 능력으로 다루는 변형생성문법에 반하여, 언어를 실제적인 사용의 맥락에서 생각하는 Austin, Strawson, Grice, Searle 등 일상언어철학자들의 사고에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학 내부에서 맥락을 고려해야만 자연스럽게 기술될 수 있는 언어의 현상들이 있다는 인식이 성숙해 있었다(Levinson, p.35).

이러한 분위기에서 Isenberg, Petöfi, van Dijk 등은 생성의미론에서 텍스트 문법의 기초를 구하려 하였다.<sup>1)</sup> Petöfi는 포괄적인 텍스트이론은 화자와 청자에 관련된 요소들을 포함하고 또 그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문법이론의 기본 전제를 문제화하였다. 1971년 '텍스트가 지시하는 대상이나 상황은 "세상-의미적' 구성소('world-semantic' component)에 의해 조절된다. 텍스트-구조와 세상-구조 사이의 최소한의 일치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텍스트 구조/세상 구조 이론(text structure/world structure theory)을 말한다. 특히 1972년 van Dijk은 'Some aspects of text grammars'라는 논문에서 '텍스트의 생성은 중심생각(main idea)과 더불어 시작되는데, 이것이 개별 문장에 침투하면서 세부 의미로 전개된다. 그리고 중심생각은 생략, 일반화, 구성 등의 방식으로 작용하면서 텍스트에서 되풀이된다'는 이론을 세운다. 이것은 오늘날 생성의미론의 방법에 기대어 텍스트문법을 설명해낸 기념비적인 논문으로 평가받는데, 이 이론의 토대 위에 미시구조, 거시구조, 초구조(micro-structure, macro-structure, super-structure)의 개념을 정립하여, 텍스트의 구조로써 텍스트문법을 기술하는 텍스트언어학의 한 전통이 형성된다.

한편 생성의미론에 기초한 연구들 중에는 사용의 맥락 또는 상황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텍스트언어학의 또 하나의 전통을 형성하는데, 이른바 화용론(pragmatics)의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화용론은 언어 사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종인(1989) 참조.

용자, 언어사용의 맥락 또는 상황 등에 주목하여 언어(language)와 맥락(context)의 상호 의존적 양상과, 언어 표현과 이해에 대한 원리에 관심을 갖는다(Levinson, p.9). 전제(presupposition)와 함축(implicature), 직시(deixis), 화행(speech acts) 등이 이러한 성격에서 연구되고 있는 주요 주제인데, 최근 사회학적 바탕을 가진 대화분석도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 이 중 화행(speech acts)은 일상언어철학자인 Austin이 '우리는 말로 무엇을 하는가(How to do things with words?)'를 화두로 삼으면서 그에 대한 답으로 언어로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보는 데서 시작되었다. Austin은 화행의 층위를 화자가 발화하는 행위인 발화행위(locutionary act), 그 발화를 통해 의도하는 행위인 발화 수반행위(illocutionary act), 그 발화로 인해 청자에게서 나타나는 효과인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로 분류하고, 이 중 가장 중심 개념인 발화수반행위를 동사(verbs) 분류를 통해 판정행위(verdictives), 행사행위(exercitives), 언약행위(commisives), 행태행위(behabitives), 평서행위(expositives)로 하위 분류한다. 이 체계를 Austin의 제자인 Searl이 다듬어 오늘날 화행이론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화행은 텍스트로 무엇을 하는가에 답하는 방식으로 언어사용의 국면을 설명한다. 대화분석은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두 명 이상의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번갈아 가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현상, 즉 대화(conversation)에 대하여 그 조직(organization) 등을 밝혀나가는데, 사회학적 또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언어사용을 설명한다.

텍스트언어학의 형성에서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1928년 러시아의 민담을 연구한 Propp의 이야기(narrative) 연구를 들 수 있다. Propp은 <Morphologie de conte>에서 '동화가 다양한 주제와 화제를 갖고 있지만 이런 다양성의 기저에는 구조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는데, 1968년 두 번째 영어 번역본이 출판되면서 관심을 모아 이야기(narrative) 연구의 효시가 된다. 이후 이야기에 대하여는 사회언어학적인 접근으로 사람의 사회적인 특성과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구조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탐구하고, 심리언어학적인 접근으로 이야기구조의 생성을 이야기 문법(story grammar)으로 만들어 내

었다(Renkema, pp. 191-205).

이 외에 사회학에서 민족지학적 자료와 담화(텍스트)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들이 나타났고(미카엘 스테브즈, pp. 73-112), 심리학에서는 텍스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심리적 실증이 이어졌다(대표적으로 van Dijk과 Kintsch의 공동 연구). 그리고 최근 van Dijk의 또 다른 텍스트 접근법으로서 성이나 민족, 계급 등과 관련하여 언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식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심을 담은 비판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도 논의되고 있다.

## 2. 텍스트언어학의 관심 영역

오늘날 텍스트언어학은 텍스트의 개념과 텍스트언어학의 연구 범주에 있어서 서로 조금씩 다르게 정리되고 있다. 먼저, 텍스트의 개념은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같은 용어라도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텍스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는 '텍스트학(textwissenschaft)'과 '텍스트언어학(textlinguistics)',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과 '담화 문법(discourse grammar)' 등인데, '텍스트학' 또는 '텍스트언어학'은 주로 유럽에서 사용되고 '담화 분석' 또는 '담화 문법'은 주로 미국에서 사용된다. 여기에서 텍스트와 담화의 개념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 구별되기도 하는데, 기존의 언어학이 다루던 문장 이상의 것을 다룬다는 차원에서 공통성을 가지면서 바꿔 쓸 수 있지만 텍스트는 주로 문어 중심의 연구에서 그리고 담화는 주로 구어(dialogue, conversation) 중심의 연구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된다.

이와 유사하게 van Dijk는 텍스트화 담화에 대하여 '넓은 의미에서는 담화와 텍스트가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문장들의 연쇄체의 개념으로 동일하게 간주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서로 구별된다'고 말하면서, '담화는 언어수행(parole, performance), 구어(verbal language), 기술

(description)에 초점을 두지만 텍스트는 언어능력(langue, competence), 문어(written language), 규범화(prescription)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 그러나 담화와 텍스트 사이의 절대적인 대립은 없다'고 한다.(정희자, 1998, 정시호에서 재인용)고 한다.

대체로 텍스트와 담화라는 용어는 대립적으로 사용되기보다 상호보완적이고 양립가능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따라서 텍스트와 담화, 그리고 텍스트언어학/텍스트학과 담화 분석/담화문법과의 용어는 변별성에 주목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담화와 구별 없이, 문장 이상의 언어 단위로서 실제 사용되는 언어를 뜻한다.<sup>2)</sup> 텍스트는 문어적인 것과 구어적인 것을 모두 의미하며, 구어적인 것에서도 독화적인 형태만이 아니라 상호교환적인 형태(대화)가 모두 텍스트이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단순히 문장 이상의 단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통일성을 가지는 단위이고, 구체적인 사용의 맥락 속에서 소통되는 언어 단위를 뜻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언어 중심의 자료만을 텍스트라고 할 것인가, 포스터와 같이 언어가 보조적인 것도 포함하는가, 나아가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말하듯이 비언어적인 사건, 현상들까지도 텍스트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텍스트언어학은 확실히 대답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체적으로 언어 중심의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데 합의하고 있는 듯하다.

다음으로, 텍스트언어학의 연구 범주에 대하여, 텍스트언어학과 텍스

2) 고영근(1999, pp. 1-10)은 텍스트에 대하여, 텍스트란 개별 단어와 단어의 모임, 문장과 문장의 모임의 어떤 층위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언어의 실존 양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실존 양식으로서의 텍스트는 언어학자들에게서 두 가지의 의미로 통용되는데, 하나는 음절이 모여 형태소가 되고, 형태소가 모여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된다는 것의 연속선 상에서 문장 이상의 단위를 텍스트라 하여 그 구조를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서 명제적 견해 또는 정태적 견해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용론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언어 사용자와 상황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텍스트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는 동태적 관점이다. 이 두 개념은 상호보완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며, 현재 텍스트언어학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개념이다.

트학이라는 용어의 대립을 주목해 볼 만하다.<sup>3)</sup> 텍스트언어학(Textlinguistics)과 같은 용어로 Hypertext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Dressler, de Beaugrande, Brinker, Schmidt 등 유럽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텍스트언어학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van Dijk를 중심으로 Kerkhoff, Plett, Grabe 등은 텍스트학(Textwissenschaft)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 두 용어의 사용은 텍스트 연구의 범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텍스트언어학은 텍스트를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며, 텍스트학은 텍스트에 대한 연구 전체를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텍스트언어학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들은 대체로 텍스트언어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Coseriu(1980)와 Brinker(1992) 등이 있다. Coseriu는 언어학을 그 연구 방향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구조·기능 언어학과 변형·생성 언어학, 그리고 텍스트언어학을 꼽는다. 언어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형태소), 단어, 어군, 절, 문장, 텍스트'의 수준으로 구조화되는데, 이 중 텍스트 단위 속에 내재하는 특수 기능들 또는 특수 규칙들을 텍스트언어학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Brinker는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체계지향적 텍스트언어학과 통보지향적 텍스트언어학이 그것이다. 체계지향적 텍스트언어학은 이제까지 수용된 언어적 체계의 단위들이 '텍스트'의 단위로 확장한 것으로, 단어 형성이나 문장 형성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형성(구성)도 언어의 규칙체계로 통제되며, 일반적인 규칙성, 곧 언어체계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규칙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텍스트문법으로 연구되었던 텍스트 구조에 대한 연구가 이 분야의 중심 연구 과제이다. 통보 지향적 텍스트언어학은 화용론에 토대한 것으로서, 특히 화용론의 중심 개념인 통보기능을 연구한다. 즉 텍스트가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용될 때 그 텍스트를 통해 의도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를테면 그 텍스트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자 하는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가, 약속을 하려 하는가 등을 실제 의사소통의 맥락(즉 화자/필

3) 텍스트언어학과 텍스트학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시호(1998) 참조.

자와 청자/독자와 사회적, 상황적인 전제나 관계)과 관련하여 분석한다. 요컨대, 텍스트언어학은 기존 언어학의 연장선 상에 있다.

반면 텍스트학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 van Dijk는 텍스트 연구를 언어학을 비롯해 문예학, 심리학, 법학, 신학, 역사학 등을 포괄하는 상위의 범주로 두어야 한다고 본다. 텍스트학의 과제는 이들 분야의 총체적이고 학제적인 구조들 내에서 텍스트상 커뮤니케이션 형식들의 구조와 사용의 문제를 분석해 내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반론도 없지 않지만<sup>4)</sup> 'Beaugrande는 van Dijk의 관점에 찬성해서 앞으로는 '텍스트언어학' 대신 '텍스트학'이라는 용어가 수용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연구자들은 폭넓은 관련학문 영역의 연구, '언어학적'이란 종래의 발상으로써는 접근할 수 없는 다면적 문제들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이다.'(정시호, 1998)고 한다. van Dijk는 '텍스트학은 물론 언어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하는데 그의 저서 제목을 '텍스트학'이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텍스트 연구가 언어학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교사, 교육가, 심리학자, 법률가, 사회학자, 인류학자 등을 위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정시호, 1998).

국어교육의 입장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좁히는 텍스트언어학보다 다양한 관심과 접근을 허용하는 포괄적인 체제를 지향하는 텍스트학의 연구 범주가 더욱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텍스트언어학에서도 요즈음 학제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때 언어 중심의 연구라는 본질은 고수하면서도 관심의 영역을 넓힐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인 듯하다.

---

4) Heinemann, Wolfgang/Viehweger, Dieter(1991)는 텍스트학이란 용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텍스트언어학은 초학문(Superwissenschaft)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van Dijk의 의미에서 텍스트학으로 이해될 수도 없다. 오히려 텍스트언어학은 텍스트 구조와 텍스트 표현연구에 제한해야 하며 그때 그때 의사소통적, 일반사회이론적, 심리적 관련성을 포함시킬 수는 있다'고 한다(정시호, 1998에서 재인용).

### 3. 텍스트언어학의 연구 범주

지금까지 텍스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연구의 주제는 텍스트성, 텍스트 구조, 텍스트 기능, 텍스트 유형이다.

#### (1) 텍스트성

텍스트성이란 텍스트라고 느끼는 이유, 곧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만드는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텍스트성에 대한 연구는 다수의 문장이 하나의 묶음 즉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텍스트인 것과 텍스트가 아닌 언어자료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이것은 텍스트의 정의와도 관련되어서 텍스트 연구의 출발점이자 기초이면서 텍스트에 대한 모든 연구 성과들이 집약되는 귀결점이기도 하다.

텍스트성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Beaugrande & Dressler(1981)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텍스트를 통보의 단위라는 관점에서 보고 일곱 가지 기준에서 텍스트성을 설명한다. 결속구조(cohesion), 결속성(coherence), 의도성(intentionality), 용인성(acceptability), 정보성(informativity), 상황성(situationality),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 그것이다.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하는 첫 번째 요소로 꼽히는 결속구조는 이와 같이 문법적인 의존 관계로 나타나는데, 짐작하다시피 구나 절, 문장의 '내부'에서 더욱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구, 절, 문장 '사이'의 결속구조도 존재하며, 텍스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이 중시된다. 이런 결속구조는 '지시와 접속' 현상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결속성은 의미적인 연결성을 뜻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넘어졌다. 병이 깨졌다.'가 있을 때, '사람이 넘어지는 사건'과 '병이 깨지는 사건'의 두 가지를 별개의 일이 아니라 앞의 사건이 뒤 사건의 원인으로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특성이 결속성이다. 결속성은 '사람이 넘어졌다. 그 때문에 그 사람의 손에 들고 있던 병이 깨졌다.'와 같이 결속구조를 보강함으로써 더욱 명시될 수 있다. 그러나 결속구조가 있다고 해서 항상 결속

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춘향은 그네를 뒀다. 그네는 나무에 맨다. 나무는 여름에 잘 자란다. 여름엔 물장난이 재미있다.'에서는 결속구조는 있지만 의미적 연결성, 즉 결속성은 없고 따라서 텍스트라고 보기 어렵다.

결속구조와 결속성은 텍스트 속에 내재되어 있어야 할 텍스트 중심의 특성인데, 사용자에게 전제되어 있어야 할 사용자 중심의 특성으로 의도성과 용인성이 있다. 의도성은 텍스트 생산자의 태도에 관한 것으로, 텍스트 생산자가 어떤 목적을 달성할 의도로 결속구조와 결속성이 구비된 텍스트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텍스트 생산자가 의도적으로 결속구조와 결속성을 무시하려 한다면(예컨대 일부러 횡설수설할 경우), 이것은 의사소통에서 텍스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상대적으로 텍스트 수용자의 태도에 관한 것이 용인성으로 수용자가 텍스트에서 결속구조와 결속성을 발견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의 결속성 설명에서 예로 든 추론은 이런 용인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외에 정보성과 상황성, 상호텍스트성을 든다. 정보성이란 텍스트 내용이 '예측한 것/예측하지 않은 것', '알려진 것/알려지지 않은 것'의 정도와 관계되는데, 예컨대 과학 교과서에 '바다는 물이다.'가 있다면 이것은 정보성이 거의 없는 텍스트이고, 만약 이 문장이 '바다에 존재하는 물질 가운데 물이 지배적이라는 의미에서만 바다는 물이다. 실제로 바다는 살아있는 엄청난 수의 유기체에 기체와 염분의 용액을 더한 것이다.'으로 된다면 과학 교과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성을 갖게 되어 의심의 여지 없이 텍스트가 된다. 상황성이란 텍스트가 되기 위해서 발화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는 특성이다. 예컨대, 도로 안내판으로 '천천히! 어린이 놀이터'는 적절한 텍스트가 되지만 '운전자들은 차의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이어서 어린이들이 도로로 뛰어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는 적절한 텍스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호텍스트성은 어떤 텍스트를 사용함에 있어 사전에 경험한 어떤 텍스트에 의존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평론, 비평, 반박, 보고 등은 상호텍스트성이 강조되는 대표적인 텍스트로, 다른 텍스트와의

관련 하에서만 적절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Beaugrande & Dressler는 이 일곱가지가 모두 만족되어야만 텍스트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다른 조건이 다 만족하더라도 어느 한 요소가 부족하거나 부적합하면 텍스트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Vater(이성만 역, pp.53-55)는 결속구조는 필수적인 요인이 아니며, 의도성과 용인성은 매우 모호한 것이고, 정보성과 상황성, 상호텍스트성은 이런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텍스트라 할 수 있다고 본다. 대체로 텍스트성에서 결속성이 핵심이고, 그 외의 기준들은 충족되지 않더라도 결속성이 있는 한에는 텍스트인 것으로 대체로 평가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 (2) 텍스트구조

텍스트구조에 대한 연구는 텍스트의 내적 구조와 그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탐구한다. 텍스트를 엮어 놓은 힘은 앞에서 말한 결속성에서 나오는데, 텍스트는 바로 이러한 결속성에 따라 조직된다. 따라서 텍스트의 구조는 의미적인 차원에서 분석된다. 텍스트구조를 분석하고 구성하는 단위는 명제(proposition)인데, 명제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의 기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능세계에 존재하는 사태(fact)를 뜻한다. 이런 명제의 관계 곧 사태의 관계가 텍스트의 결속성을 형성하고 이러한 결속성의 실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텍스트구조에 대한 연구이다.

텍스트구조에 대한 연구의 원전으로 꼽히는 것이 van Dijk(1972, 1977, 1980)이다. 그는 텍스트의 구조를 크게 세 차원으로 기술하는데, 미시구조(micro-structure), 거시구조(macro-structure), 초구조(super-structure)가 그것이다. 미시구조는 문장 내(또는 명제 내), 문연속(문장의 연결)의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텍스트의 보다 큰 단위에서 성립하는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은 거시구조이다. 그리고 초구조는 거시구조 분석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텍스트구조에 대한 도식(schema)이다. 텍스트의 형식 또는 유형을 표시해주는 구조, 예컨대 시

의 구조, 소설의 구조, 설명의 구조, 논증의 구조 등으로 말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 총괄적인 것이다.

텍스트 연구에서는 미시구조보다 거시구조가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 거시구조는 텍스트의 총괄적인 의미를 보여주며, 거시구조를 통해서 텍스트의 주제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구조는 기본적인 기저구조로서 거시구조이자 텍스트 내용인 구체적인 텍스트 형태를 변형에 의해 형성해 낸다고 본다. 이러한 초구조는 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를 위한 생산도식(productions-schemata)이자 해석도식(interpretations-schemata)으로 간주된다. 초구조에 대해서는 그 위상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도 있지만(Brinker, 1994) 그 유용성과 가능성으로 하여 계속 주목받고 있다.

### (3) 텍스트 기능

텍스트를 수단으로 텍스트 생산자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이든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목적 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언어행위는 의도적인 행위이다. 더불어서 텍스트를 사용하는 언어행위는 의도적일뿐만 아니라 규약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언어행위는 언어공동체의 구성원이 사회화 과정에서 다소 완전하게 습득한 규칙에 따라 수행된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상대자들은 텍스트 생산자가 목적인 의도를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언어 공동체의 규약에 따라 텍스트에 부여한 텍스트생산자의 전달 의도를 텍스트 기능이라 한다.

전달 의도를 담은 텍스트는 그 생산자의 텍스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달 의도를 발화수반 행위라고 한다. 발화수반행위는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아래의 Searl(1975)의 분류이고, 이외에도 Brinker(1994)123의 제보기능, 호소기능, 책무기능, 접촉기능, 선언기능 등 다양한 분류가 있다.

제시행위 (예 : 확언, 주장, 예보, 설명, 진단, 기술 등)

지시행위 (예 : 지령(지식), 명령, 부탁, 지침(훈령), 기도, 신청, 청원, 조언, 추천, 제안 등)

위임행위 (예 : 약속, 서약, 맹세, 협박, 내기, 계약, 보증 등)

정표행위 (예 : 감사, 축하, 사과, 조위, 불평, 환영, 인사 등)

선언행위 (예 : 임명, 전쟁선포, 혼례, 선사, 해약, 해고, 유증, 파문 등)

발화수반행위는 텍스트에서 언어적, 문법적 수단들에 의해 직접 표현 되는데, 이렇게 발화수반행위의 유형들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언어적·문법적 수단을 발화수반표지라 한다. 발화수반행위와 발화수반표지 간에는 규약적으로 고정된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표지를 통해 발화수반행위를 판단할 수 있다.

하나의 텍스트에는 다양한 발화수반행위들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핵심적이고 두드러진 발화수반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발화수반구조를 분석한다. 발화수반행위를 기본단위로 하여 발화수반구조를 분석해 보면 단위 발화수반행위들간에 다양한 상-하위 관계가 성립한다. 즉 발화수반구조는, 앞에서 살펴 본 텍스트구조와 마찬가지로, 계층 구조를 이루는데 상위의 발화수반행위가 나머지 발화수반행위들을 지배하고 하위의 발화수반행위는 부차적 발화수반행위가 된다. 이때 하나의 상위의 발화수반행위가 텍스트 전체의 목표(기능)를 명시해 준다. 예를 들어, '저기 내 가방이 있다. 너 그것 보이지? 그것 좀 가져와.'라는 텍스트에서 '확언-질문-요구'의 화행이 연속되어 있는데, 여기서 확언과 질문은 요구를 뒷받침하는 부차적인 것으로 요구가 생산자의 지배적인 의도이다. 즉 이 텍스트의 핵심 기능은 요구이다.

이러한 텍스트기능의 분석을 통해 텍스트가 총체적으로 무엇을 의도하는 것이라고, 예컨대 제보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호소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텍스트의 구조적 자질과 텍스트의 기능적 자질은 텍스트 분석에서 분명히 구별되지만, 일반적으로 텍스트 기능은 텍스트구조를 규칙적으로 결정해 준다고 본다(Brinker(1994), 이성만 역, p.147).

#### (4) 텍스트 유형

텍스트의 특성, 구조, 기능에 대한 연구들과 관련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텍스트를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 또한 텍스트언어학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실존하는 텍스트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특정한 텍스트의 양식은 언어공동체 안에서 역사적·사회적인 발전의 흐름 속에서 의사소통의 필요성에 따라 생겨나고, 그러한 양식은 언어공동체 구성원의 직관으로 인식할 수 있다. 텍스트의 특성이나 구조, 기능에 관한 연구도 결국 특정한 텍스트 양식, 즉 텍스트 유형별로 그 특징을 기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언어학에서는 텍스트를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사회적으로 적합한 텍스트 유형들을 탐구하고 유형별 텍스트 자질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텍스트 유형이란 문학 장르론에서 시, 소설, 희곡, 수필과 같은 일정한 유형을 설정하는 것과 같다. 물론 이러한 유형은 더 세부적인 기준으로 잘게 분류할 수 있고, 또 분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유형론은 문학적 장르까지를 포함한다. 다만 현재의 연구상 태로는 설득력있는 종합적인 분류를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비문학적인 텍스트의 분류에 대하여 연구된 것을 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비문학적인 텍스트 안에서도 산발적인 연구만을 볼 수 있다.

대체로 텍스트는 앞의 텍스트구조와 기능에서 연구한 텍스트 자질들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특징을 기술하는데,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류 기준이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된다. 대표적인 분류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텍스트 기능, 텍스트가 사용되는 맥락(상황), 텍스트의 내용, 텍스트의 구조 등이다. 예컨대 텍스트의 기능에 따라 분류할 경우 제보텍스트(뉴스, 보고, 년픽션, 서평 등), 호소텍스트(선전광고, 논평, 법규, 신청 등), 책무텍스트(감사, 조문, 그림카드 등), 선언텍스트(유언, 임명장 등)로 분류할 수 있다(Brinker의 기능분류에 따른 예). 텍스트 유형의 연구는 앞서 말했듯이 언어공동체 구성원의 직관에 맞는 텍스트 유형을 탐구하여 그 구성원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텍스트 특징을 기술하고 제공하고자 한다.

### Ⅲ. 국어교육과 텍스트언어학의 관계

#### 1. 텍스트언어학에서 국어교육으로

국어교육에서는 텍스트(text)에 대한 연구에 주목하여 텍스트언어학에서의 연구 성과를 국어교육에 활용하였다.<sup>5)</sup> 텍스트언어학은 국어교육에 언어학적 지식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표현과 이해의 언어 사용의 원리로도 응용되어 도입되어 있다. 언어 사용의 원리로서 작용하는 텍스트언어학의 지식은 국어교육에 무엇보다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텍스트언어학의 연구 주제들 중 텍스트구조는 국어교육에 특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텍스트언어학은 미시·거시·초구조라는 개념적인 차원을 낳았지만, 국어교육은 개별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하여 실천으로서의 구조 분석 원리를 재정립하고(김봉순, 1996; 박진용, 1997 등), 그것의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 등 교육 전 과정에서의 교육적 유용성을 검증하고(김정중, 1997; 김명순, 1998; 노경숙, 2001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다(천경록, 1992; 류지춘, 2000 등). 설명적인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이었지만 문학에서의 텍스트구조에 대한 관심도 없지 않았다(고영화, 1997 등).

텍스트구조는 텍스트언어학을 형성시킨 원동력의 하나이면서 초기의 연구주제로서 주목받다가 요즈음은 텍스트언어학자들의 관심사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있는 것인데, 국어교육에서 그 효력을 한껏 발휘하였다. 이미 인지심리학에서 텍스트구조의 심리적 실재를 검증하였고 표현과 이해 과정에서의 전략적 활용의 유용성이 검증된 바였으므로 국어교육에서 표현과 이해의 원리로 쉽게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구조는 지금까지 국어교육에서 보인 관심 외에도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 많다. 우선 설명적 텍스트(expository text)만이 아니라 서사적 텍스트(narrative text)를 포함하는 문학적 텍스트의 구조 분

5) 이은희(1998)은 현재 국어교육에 도입되어 있는 텍스트언어학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여주고 있다.

석과 교육적 적용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적 유용성의 문제가 심리적 실재와 활용의 차원을 넘어 학습자의 인지 발달에 따른 활용의 유용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교육적 방안들이 더욱 탄탄히 마련되어야 한다.

텍스트기능을 비롯한 화용론적 연구 주제들은 오늘날 유럽계의 텍스트언어학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 그것의 국어교육에의 도입은 텍스트구조만큼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용론적 원리들이 국어교육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유되어 있고, 이 중 표현의 특히 말하기의 원리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텍스트 유형(장르)의 분류에서 텍스트기능이 핵심적으로 고려되어 국어교육의 텍스트 선정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텍스트 기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렇듯 국어교육의 핵심인 표현·이해의 또다른 주요 원리가 된다. 현재 국어교육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독화적이고 글로된’ 텍스트의 표현·이해는 텍스트구조와 관련하여 연구하고 ‘대화적이고 말로된’ 텍스트는 텍스트 기능과 관련하여 주로 연구되고 있는데 연구의 안목을 넓힐 필요가 있다. 텍스트의 기능과 그것이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방식들은 중요한 표현의 원리이고, 텍스트에 담겨진 중심적인 기능을 파악하는 것은 텍스트 이해의 방법이기에 때문이다.

더불어 텍스트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기술하는 작업 또한 국어교육에서 매우 긴요하게 활용된다. 텍스트 유형에 대한 연구는 균형있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재선정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필수적일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텍스트 양식을 생산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다. 특히 지금까지 국어교육에 소개된 텍스트 유형은 의사소통 행위를 중심으로 분류된 것인데, 앞으로 텍스트의 언어적 자질을 중심으로 한 텍스트 유형 또한 표현 원리나 이해 원리로서 유용하게 도입할 만하다.

텍스트 연구의 모든 결과는 텍스트성, 특히 결속성(coherence)을 해명하는 데에 모아진다. 이러한 결속성에 대한 연구의 성과는 표현과 이해

의 핵심 문제인 '주제'를 설명하는 데에 중심적인 원리가 될 것이다. 물론 텍스트 연구에서도 텍스트구조나 기능을 통합하는 일관된 설명 체계가 개발되어야 하고 결속성도 그런 통합적인 체계 속에서 더욱 설득력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하지만, 이런 과제는 국어교육에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텍스트 언어학에서 많이 나오는 결과물 중의 하나가 결속 구조(cohesion)에 관한 것이다. 한국어의 결속 구조에 대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학교 문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국어교육의 국어지식 영역에서 '담화/텍스트'의 개념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결과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속 구조의 요소는 표현에서 언어 선택의 자료로, 이해에서 이해 단서의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텍스트언어학 자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성숙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론 자체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하고 국어교육적 유용성을 판단해야 하며, 그 교육적 적용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된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국어교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더욱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고, 성과는 국어교육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임에 틀림없다.

## 2. 국어교육에서 텍스트언어학으로

텍스트언어학이 국어교육에 기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어교육 또한 텍스트언어학에 대한 기여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어교육 분야에서 나온 텍스트언어학적 연구들은 텍스트언어학의 소중한 연구물이 될 수 있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연구 성과 외에도 문제 인식의 방법

6) 접속관계를 밝히고자 한 이은희(1993), 결속성을 밝히고자 한 서혁(1996), 결속구조적 요소를 분석한 김봉순(1996), 우리의 전통적인 텍스트 유형 또는 양식을 밝히고자 한 고영화(1997)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

과 해결의 논리에서 또다른 측면을 조명할 수 있으므로 국어교육은 텍스트언어학에 더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텍스트언어학은 기본적으로 언어의 속성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으며 생산된 언어적인 결과물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국어교육은 언어가 사용되는 현상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으며 그 결과물뿐만 아니라 사용의 과정에도 관심이 있다. 텍스트언어학은 언어의 속성을 더욱 타당하게 또는 충실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언어'의 속성을 밝히고자 하지만 국어교육은 언어가 인간에게서 사용되는 현상, 즉 인간이 말을 하고 글을 쓰고 말을 듣고 이해하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현상을 교육적 필요에서 탐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언어학과 국어교육은 '사용으로서의 텍스트'라는 '사용'이라는 상황과 '결과물'로서의 언어자료에 공통으로 관심을 갖지만 국어교육은 교육적 유용성과 사용의 과정이라는 측면을 문제 인식과 해결점 모색에서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텍스트의 결속구조(cohesion)를 밝히는 연구라 하더라도 국어교육에서는 언어사용자들이 비교적 무리없이 사용하고 있는 문장 어미의 텍스트언어학적 조명보다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지요소(예를 들어, 김봉순, 1996)에 더 관심을 갖는다. 또 결속성에 대한 연구라도 국어교육에서는 텍스트의 주제 분석(파악)이라는 실천적이고 과정을 포함한 관점에서 반복의 빈도(Kintsch, 1974)나 분류와 범주화(Aulls, 1986), 포괄성과 상호성(김봉순, 1999) 등의 원리로 텍스트의 결속성의 근거를 찾는다. 이러한 문제인식과 해결책은 텍스트언어학을 더욱 충실하고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인식방법일 것이다.

둘째, 실제로 텍스트언어학은 기존의 언어학이 가지고 있던 생각, 즉 생산된 언어 결과물을 설명하고 기술하려는 성격이 강하고, 그것의 문

---

한 연구들을 처음부터 텍스트언어학의 연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연구자들의 학문적 배경이 텍스트언어학이 아니라 국어교육이며 국어교육적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국어교육에의 적용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에 기반한 연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 연구의 참고 문헌은 텍스트언어학보다 국어교육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다.

법성 내지 규칙성을 발견하려는 속성이 강하다. 그러나 국어교육은 규범성과 더불어 창조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한다. 어떤 언어적인 관습 또는 텍스트의 관습을 알고 익히는 것을 넘어서 그것의 새로운 변용과 창조를 의도한다. 따라서 텍스트연구의 관점을 텍스트의 관습적인 또는 규칙적인 속성의 기술만이 아니라 텍스트가 변화할 수 있는 속성, 과거의 텍스트와 미래에 생산될 텍스트를 연결지어 주는 고리로서 지금 현재 텍스트를 분석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어교육은 연구 대상인 텍스트가 기존에 생산된 텍스트만이 아니라 앞으로 생산될 텍스트까지 포함하면서, 관습적인 뿐만 아니라 가변적이기도 한 텍스트의 속성에 관심을 갖는다.<sup>7)</sup>

텍스트언어학에서는 1970년 무렵부터 텍스트의 규범성을 찾으려는 텍스트문법 연구 차원의 인식을 넘어서 화용론적 관점에서의 텍스트, 이른바 동태적 텍스트의 연구를 강조하였고 오늘날 유럽계의 텍스트언어학은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어교육은 언어 사용의 맥락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에는 사회구성주의 영향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의 작용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사용의 언어' 또는 '언어의 사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텍스트언어학에서나 국어교육에서 더욱 발전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텍스트를 분석함에 있어 맥락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은 의미 있지만, 맥락을 고려하여 텍스트의 특성을 기술(description)하는 것과 맥락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생산/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다. 국어교육은 맥락을 고려하는 관점에서든 미래의 언어사용을 위해 현재와 과거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역시 텍스트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용론적 텍스트언어학과도 다른 인식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셋째, 교육 절차적 필요성에서 국어교육은 텍스트언어학에서는 관심 갖지 않는 연구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의 결과

---

7) 물론 이러한 텍스트의 규범성과 창조성을 어떻게 규명하고 풀어나가야 할지는 아직 국어교육에서도 과제로 남아있지만, 문제 인식의 수준은 확실히 텍스트의 창조성 또는 가변성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 텍스트언어학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확인하며 공고히 해 주는 역할을 한다. 텍스트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국어교육에서 실천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적 요소가 선별되고 인지적 타당성이 검사되고 교육적 절차에 따른 재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텍스트언어학의 이론이 평가될 수 있다. 평가는 이론 자체가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얼마나 실용적이며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적 성격의 판단이다. 이것은 텍스트언어학에 활력을 불어 넣고 든든한 지지대가 될 것이다.

#### IV. 국어교육을 위한 텍스트언어학의 재구성

국어교육과 텍스트언어학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분야를 튼실히 만드는 상생적인 관계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국어교육에서 의미있는 텍스트언어학의 위상을 점검하고, 국어교육을 위한 텍스트언어학을 재구성할 수 있다.

먼저 국어교육의 입장에서 텍스트언어학의 성격 또는 연구 범주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텍스트언어학은 텍스트학으로 대변되는 광범위한 연구 범위와 관심을 취하는 입장과 언어학적 관심사를 중심으로 하는 비교적 제한적이고 성격이 뚜렷한 입장의 두 가지로 학문적 성격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어교육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텍스트언어학이 언어학 중심의 관점을 가질 때는 텍스트 기술의 범위가 좁아지지만, 국어교육이 던지는 인식을 공유할 때는 텍스트 연구가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상호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텍스트언어학의 관심과 시야를 넓게 잡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인용한 Beaugrande의 말과 같이 ‘언어학적이란 종래의 발상으로써는 접근할 수 없는 다면적 문제들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에 대하여 텍스트언어학 내부에서는 ‘인지과학과 그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텍스트언어학이 새로운 첨단이론과 접목되어 시의성을 얻고 있지만 원래의 고유 대상이 마멸되어 버릴 위험에 빠져 있다.'고 보기도 한다(Antons/Tietz, 1987, 정시호, 1998에서 재인용). 국어교육이 던지는 문제 인식의 관점을 '생산품으로서의 텍스트는 인지과학 테두리 내에서는 인지적 조작과 과정으로 인해 해체되어 버린다. 텍스트 수용과 텍스트 생산을 위한 계기는 우리의 관심을 언어적 표명에서 인지적 조작과 전략으로, 그렇게 해서 생산에서 과정에서 이행시켜버린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텍스트언어학이 자신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국어교육에서 필요한 텍스트 연구는 기존의 텍스트언어학이 매달리는 것과는 달리 시야를 넓혀서 텍스트의 문제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van Dijk의 텍스학에서 말하듯이 신학이나 법학 등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것을 다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언어 문화론이나 심리학에서 다루는 텍스트의 심리적 실재나 처리 과정, 그리고 문학적 텍스트의 분석을 다루는 문예학 등 국어교육과 비교적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수용해야 하겠지만 텍스트에 관한 또는 텍스트를 소재로 한 연구라고 하여 모든 것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음으로 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적 내용을 재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텍스트언어학의 체제를 논의의 중심에 두고 국어교육을 해체하여 편입시키는 구도였으나, 효율적인 국어교육 논의를 위해서는 국어교육의 체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국어교육의 체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텍스트언어학적 문제들이 연구되어야 한다.

- 첫째, 국어교육에 필요한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 둘째, 이에 대한 텍스트 이론을 가져오거나 자체 개발해야 하며,
- 셋째, 텍스트이론에는 언어사용의 과정 또는 전략과, 규범성뿐만 아니라 창조성이 전제되어 있거나 개발·검증되어 있어야 하며,
- 넷째,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등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다섯째, 교육적 적용에는 발달 단계의 적합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국어교육을 위한 텍스트 연구에서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수용한다’가 아니라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기존의 이론을 찾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텍스트언어학은 기본적인 이론들을 제공해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이론을 개발해 주지는 않는다. 국어교육을 위한 텍스트언어학은 국어교육 내부에서 형성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V. 맺음말

본고는 국어교육과 텍스트언어학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국어교육을 위한 텍스트언어학의 설정이 필요함을 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텍스트언어학의 형성 배경과 연구 영역 및 주제를 살펴 텍스트언어학의 성격을 점검하고, 이 근거 위해서 국어교육과 텍스트언어학의 상호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어교육과 텍스트언어학은 기존의 이해와 달리 텍스트언어학에서 국어교육으로 흐르는 일방적인 영향관계가 아니라 상호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상생적인 영향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텍스트언어학적 논의 전개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국어교육을 위한 텍스트언어학적 논의를 위해서는 논의의 범주를 언어학적 관점만이 아니라 인지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으로 확장하여 보아야 하며, 논의의 내용을 연구 문제의 발견과 해결에서부터 교육적 적용과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루어야 함을 말하였다. 앞으로 국어교육과 텍스트언어학은 서로 기여적인 긴장관계를 놓치지 않아야 하며, 국어교육은 텍스트의 문제를 충실히 풀어내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고영근(1995), 「단어 문장 텍스트」, 한국문화사.
- 고영근(1999), 「텍스트이론 : 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아르케.
- 고영근 외(1994-2000), 「텍스트언어학」 1-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고영화(1997), “용비어천가 텍스트의 구성 원리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김명순(1998), “텍스트 구조와 사전 지식이 내용 이해와 중요도 평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 김봉순(1996), “텍스트의 의미구조의 표지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김봉순(1999), “설명적 텍스트의 중심 내용 분석 원리”, 『국어교육학연구』 9. 국어교육학회.
- 김봉순(2000), “학습자의 텍스트구조에 대한 인지도 발달 연구 : 초·중·고 11개 학년을 대상으로”, 『국어교육』 10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김정중(1997), “설명적인 글의 구조 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 김종인(1989), “텍스트언어학 소고”, 『불어불문학연구』 24, 한국불어불문학회.
- 노경숙(2001), “텍스트 구조 지도 전략의 효과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 류지춘(2000), “설명적 텍스트 구조의 발달 단계별 지도 방법 연구”, 공주교대 석사논문.
- 박용익(1998), 「대화분석론」, 한국문화사.
- 박진용(1997), “텍스트 의미 구조의 과정 중심 분석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 서혁(1996), “담화의 구조와 주제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이성영(1994), “표현의도의 표현 방식에 관한 화용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이은희(1993), “접속관계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 이은희(1998), “텍스트 언어학의 국어교육적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8, 국어교육학회.
- 이은희(2000), 「텍스트언어학과 국어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시호(1998), “반데이크의 텍스트학 이론에 대해”, 『텍스트언어학』 5,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정희자(1999), 『담화와 문법』, 한신문화사.

천경록(1992), “덩이글의 주제 구성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Antons & Tietz(1987), *Kie Zukunft der Textlinguistik*, Niemeyer.

Aulls, M. W.(1986), “중심 내용 기능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기”  
Baumann(ed.), *Teaching main idea comprehension*,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문선모 역(1995), 중심 내용의  
이해와 수업, 교육과학사.

Brinker, K.(1992), *Linguistische Textanalyse*, 이성만 역(199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Coseriu, E.(1981), 신익성 역(1995), 텍스트언어학, 사회문화연구소.

de Beaugrande, R. A. & Dressler, W. U.(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gman, 김태욱, 이현호 공역(1991), 담화·텍스트언어학 입문, 양영각.

Heinemann, Wolfgang/Viehweger, Dieter(1991). *Textlinguistik*, Eine Einführung, Tübingen: Niemeyer.

Hindelang, G.(1982), 김갑년 옮김(1999), 화행론 입문, 한국문화사.

Kintsch(1974), W., *The representation of meaning in memory*,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Levinson, S. C.(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익환, 권경원 공역(1992), 화용론, 한신문화사.

Renkema, J.(1992), 이원표 역(1997), 담화연구의 기초, 한국문화사.

van Dijk, T. A.(1972), Some aspects of text grammars, *A stugy in theoretical linguistics and poetics*, The Hague/Paris: Mouton.

van Dijk, T. A.(1977), *Text & Context*, London, Longman.

van Dijk, T. A.(1980), *Textwissenschaft Eine inter disziplinare Einführung*, 정시호 역(1995), 텍스트학, 민음사.

van Dijk, T. A. & Kintsch. W.(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Academic Press.

Vater, H.(1994), *Einführung in die Textlinguistik*, 이성만 역, 텍스트언어학입문, 한국문화사.

<초록>

## 국어교육을 위한 텍스트언어학

김 봉 순

본고는 국어교육과 텍스트언어학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국어교육을 위한 텍스트언어학의 설정이 필요함을 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텍스트언어학의 형성 배경과 연구 영역 및 주제를 살펴 텍스트언어학의 성격을 점검하고, 이 근거 위해서 국어교육과 텍스트언어학의 상호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어교육과 텍스트언어학은 기존의 이해와 달리 텍스트언어학에서 국어교육으로 흐르는 일방적인 영향관계가 아니라 상호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상생적인 영향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텍스트언어학적 논의 전개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국어교육을 위한 텍스트언어학적 논의를 위해서는 논의의 범주를 언어학적 관점만이 아니라 인지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으로 확장하여 보아야 하며, 논의의 내용을 연구 문제의 발견과 해결에서부터 교육적 적용과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루어야 함을 말하였다.

**【핵심어】** 국어교육, 텍스트언어학

<Abstract>

## **The need of textlinguistics centered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Kim, Bong-s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relation of textlinguistic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as National language education) and to affirm the need of new research system of textlinguistics centered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So I reviewed the history, the areas and the main thesis of the research in textlinguistics. On the base of this review, I analysed the co-relation of influence in textlinguistic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result of this analysis, we knew that not only textlinguistics influences Korean language education but also Korean language education can influence textlinguistics developmently. So it needs to cognize and solve the proble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at have to research in the method of textlinguistics. It has to expand the view point of text to cognitive and social dimensions over pure linguistic dimensions, and solve the problems from discovery of text property to application to education that are centered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textlinguistics